

지암불교문화재단 '청년문화원' 개원

청년·문화·정보화에 역점

새로운 청년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사찰 정보화를 선도할 불교청년문화원이 개원한다.

지암 이종욱 스님의 유훈을 잇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지암불교문화재단(이사장 성담)은 11월 7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 지암정사에서 불교청년문화원 개원식과 재단 출범 및 지암정사 개원 1주년 법회를 개최한다.

네트워크 구축... 불교 문화 공유·홍보 홈페이지·사찰 관리프로그램 등 지원

지암불교문화재단 산하 단체로 구성되는 불교청년문화원은 △문화원과 함께 하는 사찰 △문화원과 연계하는 청년회 △불교문화 교육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 4가지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불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불교문화운동, 불교문화교류, 봉사활동, 온라인 정보교류, 불교문화·참선·다도교육 등 다양한 테마의 불교문

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선 정기적으로 큰스님의 만남을 주선해 법문을 듣고,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한편, 자원봉사, 사찰 성지순례, 불교 역사문화 기행, 청년한마당 등의 행사와 교육관에서 진행할 예절교육, 전

통차와 다도, 불교문화, 불교도서관, 명상회와 참선 등 교육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홍보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 계획 중의 하나, 사찰 정보화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청년문화원측은 정보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사찰 관리프로그램, 사찰 컴퓨터교육 등을 지

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찰관리프로그램의 불필요한 메뉴와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사찰관리프로그램은 회원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청년 불교 네트워크도 구성해 사찰 정보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암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성담 스님은 "친일논란이나 불교분규 문제로 사장되었던 지암 종욱 스님이 근세 한국불교에 남긴 발자취와 업적을 재조명해 그분의 뜻과 정신을 되살리고자 재단과 불교청년문화원을 설립하게 됐다"며 "종욱 스님의 유훈을 이어 설립한 지암 불교문화재단은 불교청년문화원을 비롯해 문화사업, 도서출판, 사회단체 지원, 장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033)335-7896

김지영 기자 jgyang@buddhapia.com

'1인 10등불 확산운동' 전개

'생명평화' 결성 1주년 대회... 평화학교 개설



생명평화 탁발순례 사진전 모습.

10월 15일부터 남원 실상사 일대에서 열린 '2004 생명평화대회'가 17일 '1인 10등불(회원확산운동)'을 전개기로 결의하고 회향했다.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이하 '생명평화')가 결성 한해를 맞아 '참회와 성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해 10만등불 서약운동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또한 생명평화탁발순례도 여름, 겨울 순례를 멈추고 지리산생명평화학교에서 1개월

씩 안거에 들기로 했다.

생명평화는 평화대회 마지막 날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전국에서 연인원 500여명의 회원이 모여 펼쳐진 '생명평화대회'는 15일 '살 나 누기', 16일 '참회와 성찰', 17일 '생명평화 서약'으로 진행됐다.

생명평화탁발순례 평가회에서 순례단은 "3월 1일부터 지리산권을 시작으로 제주와 부산을 거쳐 현재 경남권을 순례 중"이며 "순례 길에서 2000여명의 사람을 만나 1000여명이 '생명평화결사'의 등불이 됐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생명평화학교, 가을강좌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산하 빛고을생명평화학교가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04 가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26일 생명평화탁발순례종인도법 스님(생명평화와 진리의 길의 강연은

시작으로 시인 박남준, 가수 한보리(시와 노래로 나누는 생명평화), 녹색평화 발행인 김종철(산업사회의 대안은 없는가)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강좌에 앞서 고대사연구가 서정록 씨와 함께 1박2일간 '아시아 고대와 북미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2회(화·금 저녁 7시) 광주 신흥중앙회 광주전남본부 5층 강당에서 펼쳐진다. (062)264-9242 이준엽 기자



빛고을 광주의 불교합창단이 모여 '가

를 빛낸가'의 음성공양(사진)을 올렸다.

광주·전남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10월 16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회'를 개최했다.

금년으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합창예회는 합창사, 증심사, 원각사, 한마

양양 진전사 복원 가시화 10월 19일 상량식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陳田寺) 복원이 가시화됐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10월 19일 진전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전사 복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신흥사는 지난 4월 복원 기공식에 이어 총 9억8천만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20평 규모의 대웅전과 40여 평 규모의 요사채를 전통양식에 따라 복원하고, 탐방객을 위한 대형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종조전을 건립하고 선원도 복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종조(宗祖)인 도의국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법을 선포했던 곳으로, 진전사지에는 현재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도의선사의 묘탑으로 추정되는 부도(부불 제 439호)가 남아있다. 한명우 기자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요청 불갑사 영광군청 간담회서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가 전남도에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10월 21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불갑사'가 자리한 불갑산이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산 정상에 건설 중인 팔각정, 5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 등으로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원지정으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갑사는 이를 위해 15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박준영 전남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공식요청하고 도지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불갑산은 영광군과 함평군에 걸쳐 자리해 있으며 천연기념물(112호) 참사나무, 상사화 등 희귀식물 자생군락이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합창예술회 성황

합창사·증심사 합창단 등 참가

음선원, 금광사, 백양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광주지역 7개 사암 및 사암연합회 불교합창단이 참가했다.

합창예에 앞서 대홍사 조실 천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합창제를 통해 불교 음악이 불자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도 인사말에서 "사찰과 불자들이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남양주 보광사

"대중과 호흡하는 도량 될 것"



주지 선우 스님이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만다라를 설명하고 있다.

계절에 단청이 들고 있다. 여름내 푸른 기운을 내뿜던 나뭇잎들이 시간의 흐름을 일깨우며 완숙미를 자랑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과 오남읍의 경계를 이루는 천마산에 자리 잡은 보광사주지 선우에도 눈이 시리도록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천년고찰인 보광사는 고려 광종 때 혜거 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851년(조선 철종 2년) 판부사 이유원이 중창했지만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됐다. 선우 스님의 은사인 화담 스님이 현재의 토지와 전답을 마련하고 대웅보전

이신 석가세존의 열반도, 참 삶의 깨달음을 전하는 진리의 그림 탐마도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 수묵화의 향연과 문인화의 담백함이 더해 깊어가는 가을, 높은 하늘의 고요함을 노래한다.

10월 23일 열렸던 산사음악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가을밤을 한껏 달뜨게 했다. 보광사에 거주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찬링(공연)으로 막을 연 산사음악회는 성열 스님과 심진 스님의 음성공양과 터울림의 사물연주, 통기타 연주와 힐합 댄스그룹 캄블라의 공연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축제였다.

'천마산 산사축제' 열어 지역 활성화 고려불화 재현, 티베트 연구관 건립 서원

을 중창하다 열반에 들었다. 이제 고스란히 선우 스님의 몫이 된 것이다.

1998년 주지 소임을 맡은 후 스님은 직접 포크레인과 트럭을 몰며 불사 재정에 나섰다. 평소 문화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스님은 보광사를 지역문화거점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천마산 산사축제'인 것이다.

10월 14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열리는 산사축제는 크게 만다라 전시회와 산사음악회로 나뉜다. 만다라 전시회에는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수작(秀作) 만다라와 상처받은 중생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자비의 어머니 수월관음도, 열반의 참 세계를 보

는 산사축제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 지역민 뿐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광사를 수행공간, 신앙공간, 생활공간, 의식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의 또 다른 서원은 고려불화를 모두 재현하는 것과 보광사에 티베트 관련 각종 기관들을 건립하는 것.

선우 스님은 "대중들이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라는 코드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만들 뿐 아니라 대중포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594-1316

글·사진/남양주·남동우 기자

2004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3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3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성적증명서 · 사진 2매(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 2004년 12월 5일(일) 오후 1시~오후 5시 (필기시험 및 면접)
- 학교별 일괄접수
- 2004년 10월 20일(수)~11월 10일(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시사일본어학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
- 2005년 1월 10일
- *포교사 고시 문제집 신청 바랍니다.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접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연합회 사무국 02-734-959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 불교 교육 단체 연합회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저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조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시면 봉사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국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